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2. 19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해외건설 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성호, 서기관 윤효석, 주무관 조기환 • ☎ (044) 201-3516, 3520, 3523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2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9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해외건설 기업 경쟁력 높이고 청년 일자리 늘린다 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에 공기업국제기구 인턴십 도입...올해 27억 원 투입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「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」을 통해 해외건설 기반시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.
 - 「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」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‘해외건설 현장 훈련(OJT) 지원사업’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 및 해외 인프라 관련 국제기구 등의 ‘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’을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,
 - ‘19년에는 2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0여 명(OJT 지원 120여 명, 청년 인턴십 지원 30여 명)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‘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’은 2012년 이후 124개 중소·중견 건설업체 2,000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66개국 415개 해외현장으로 파견하였고,
 - 이를 통해 중견·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수행 지원,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.
 - 지난해 10월부터는 지원금 상향, 지원요건 완화, 청년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열악한 중소·중견기업 지원 강화 및 청년층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다.

- 특히, 올해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, 국제기구, 외교부 재외공관 등에서의 청년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차세대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.
- ‘해외인프라 공기업 청년인턴십 프로그램’은 체험형 인턴으로 지난해 1차로 26명이 선정되어 4개 공기업 13개 국가*에 올해 1월부터 6개월 간의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하반기에 2차 인턴을 모집할 계획이다.
 - * LH(쿠웨이트,베트남,인도,미얀마,볼리비아), 한국수자원공사(파키스탄,인도네시아,필리핀,캄보디아), 한국도로공사(에티오피아,모리셔스,방글라데시), 한국철도시설공단(중국,인도네시아)
- 또한, 유엔개발계획(UNDP), 유엔해비타트(UN-HABITAT) 등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국제기구와 외교부 재외공간 신축 국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에게도 교육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「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」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, 심의 등을 거쳐 선발되면 훈련비, 과건비 및 체재비를 지원받게 된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(www.icak.or.kr) 교육훈련실 (02-3406-1033, bs603@icak.or.kr)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(044-201-3523)로 문의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“이 사업을 통해 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양성”하고,
- 우리 중소·중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윤효석 서기관(☎ 044-201-352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